

# 위고 탄생 2백주년에 즈음한 프랑스 출판계 풍경

추억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출판물들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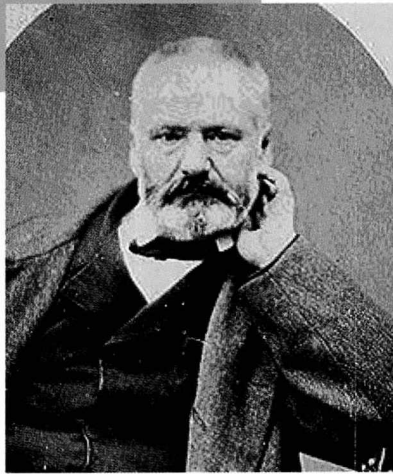
장석훈 | 출판기획자 · 번역가

프랑스인들은 추억의 힘을 믿는 듯하다. 기억하려고 애쓰다보면 시인의 육신이 사라진 먼 훗날에도 시인의 체취를 온전히 느끼면서 그의 시를 애송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지난 2월 26일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탄생 2백주년 기념일이었다. 어제 일도 아득한 판에 프랑스인들은 2백년 전에 태어난 사람을 추억의 힘으로 오늘날에 고스란히 되살려놓았다. 삶은 미완의 문장이라는 위고의 어록이 그의 생생한 육성으로 울리는 듯하다. 프랑스는 단순히 그날을 전후해서 행사를 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올 한해를 고스란히 그를 기념하는 해로 바꿨다. 프랑스 문화부 산하의 빅토르 위고 탄생 2백주년 기념행사 위원회가 행사로고로 '빅토르 위고 2002'를 선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 위고의 삶과 문학 조명하는 책들 나와

'빅토르 위고 2002'는 프랑스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한 지난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협조공문을 내려보내 전국 모든 교실의 첫 수업을 위고의 작품강독으로 시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크 랑 교육부 장관은 파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직접 위고의 시 한 편을 읽어주기도 했다. 이는 다시 위고 탄생 3백주년 행사를 준비할 후손들을 키워낼 프랑스의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를 사용해 작품 활동을 한 위대한 문인을 다시금 일깨우는 상징적 행위였다.

위고 탄생 2백주년을 맞아 프랑스에서는 위고의 삶과 문학을 조명하는 다채로운 출판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빅토르 위고.



말 그대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행사에 가장 앞서서 챙겨야 할 것은 위고 작품 전집이었다. 1985년에 문화부의 지원아래 로베르 라퐁 출판사의 고전총서 <라퐁부쟁(Laffont-Bouquins)>에서 위고 전집이 출간된 적이 있지만, 이미 그 판본은 서점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출판사도 절판한 상태였다. 이에 국립도서관과 외무부 후원으로 이 전집을 다시 출간하게 됐다. 특히 외무부에서는 이 전집을 전세계 프랑스 문화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처럼 문인으로서, 정치활동가로서 위고의 발자취가 남겨진 모든 분야에서 행사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가장 오래 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해온 곳은 다름 아닌 출판계였다. 새해 벽두부터 평균 7백쪽 이상의 두터운 위고 관련 책들을 쏟아내면서 프랑스 출판계는 그들의 저력을 과시했다. 그 가운데 몇 작품을 살펴보면, 우선 서른한살의 젊은 전기 작가인 장 마르크 오바스가 집필한 1,416쪽의 전기 <빅토르 위고>(파이야르)가 있다. 이 책은 위고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는 참신함을 보

여주고 있으며 필립 솔레르스는 이를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다고 평했다. 그리고 <위고와 동양>(메종뇌브 라로즈)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20여명의 프랑스 및 외국의 위고 학자들이 집필한 것으로 이란, 인도, 일본, 베트남 등 동양의 위고 학자들이 생전에 동양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위고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분석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 자국 예술가에 대한 프랑스인의 유다른 사랑

그런데 이처럼 성대하고도 조직적인 기념 행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빅토르 위고라는 인물이 프랑스인들에게 매우 각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프랑스인들이 자국의 지식인과 예술가에게 품는 일반적인 애정에서 더 깊은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3일은 앙드레 말로 탄생 1백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백수를 누리는 사람

도 드물지 않은 요즘인데, 탄생 1백주년이라고 할 때 그 느낌은 새삼 다르다. 것처럼 몇 주년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기리는 행위는 행위 자체의 숭고성과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위대한 예술가와 학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순간 추억훈련이 시작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프랑스인들은 그의 탄생 1백주년, 2백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듯했다. 위고는 1848년 2월 24일을 기념하는 날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추억은 우리의 힘입니다. 7월 14일, 9월 22일, 2월 24일을 말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기념일들이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둠이 다시 기승을 부리려 할 때, 햇불을 밝히듯 우리는 그 위대한 날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